

朴齊家の 商工業開發論과 開國通商論

愼 鏞 廈

박제가는 18세기 후반에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민후생을 위해 정부정책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그 내용의 핵심의 하나는 당시 집권정치가들이 상업과 공업을 천시하고, 특히 상업이윤을 ‘末利’라고 하면서 극도로 억압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비판한 것이었다.

그는 상업이윤이야말로 자원과 재화를 합리적으로 유통·분배시켜서 생산과 기술의 발전을 자극하여 국민과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상업과 공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옹호·강조하였다. 따라서 그는 ‘商業利潤’을 대담하게 적극 옹호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을 주장하였다. 그는 공업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서양선진기술의 적극 도입을 이미 18세기에 주장하였다.

그는 4백년 이상 오래된 쇄국정책에도 반대하고, 개국과 해외 통상무역을 적극 실행하여 세계대세와 보조를 같이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제가의 18세기의 이러한 사상은 당시 한국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맹아를 옹호하고 형성을 주장한 사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1. 머리말

조선왕조 후기인 18세기 말에는 자본주의 요소의 발전에 따라 사회경제 부문에서 商品貨幣關係가 일정한 정도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에 관련하여 실학파의 경제사상에도 종래의 자급자족적 자연경제 옹호론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종래 ‘末業’이라고 차별하여 賤視해 오던 商業과 商業利潤을 적극적으로 긍정하여 옹호하는 사상이 대두하였다. 그 대표적인 실학자로서 楚亭 朴齊家(1750-1805?)를 들 수 있다.

박제가는 19세 때 燕巖 朴趾源의 문하에서 實學을 공부하고, 湛軒 洪大容으로부터도 실학사상을 지도받으면서, 그 자신의 독자적 실학사상을 형성하게 되었다. 박제가는 1778년(정조 2년) 사절단장 蔡濟恭의 수행원으로 淸나라에 갔다가 그곳의 여러 가지 문물과 청국안에 들어와 있는 서양물품들을 관찰하고 돌아와서 『北學議』를 저술하였다.

박제가의 『北學議』에 수록된 논문들에서는 그가 자기 조국을 세계의 대세와 시대의 추세에 낙후되지 않는 富強한 國家로 발전시키고자 한 애국적 염원이 잘 표현되어 있다.

박제가는 『北學議』에 수록된 논문들에서 당시 집권층이 시행하고 있던 ‘重農抑末政策’

을 신랄히 비판하고, ‘末業’인 商業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그는 상업이야말로 국가의 資源을 합리적으로 유용하게 배분하고 이용하게 할 뿐 아니라 生業을 자극하고 진흥시켜 나라의 경제와 기술과 富를 증대시키는 매우 중요한 부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제가는 따라서 당시 유학자들과 집권층이 천시하고 억압하면서 ‘末利’라고 멸시하던 ‘商業利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商業利潤’을 긍정하여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富強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제가는 또한 조선왕조가 당시 4백여년 동안이나 鎖國政策을 채택하여 다른 나라들과 通商하지 않은 것이 나라의 산업과 기술을 낙후시키고 사상까지도 固陋하게 만들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開國하여 다른 나라들과 通商貿易을 전개하고 海外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나라를 부강하게 발전시키자고 제의하였다.

박제가의 이러한 사상과 주장은 실학자들 중에서 독특한 것이므로, 林鍾哲 교수님의 학문생활을 기리는 뜻에서 박제가의 『北學議』에 나타나 있는 그의 이 측면의 선진적 경제 사상을 고찰하기로 한다.

2. 商工業開發論

박제가는 당시 지식인들의 사상과 국가정책이 농업을 중시하는 반면에 商業과 工業을 차별하여 賤視하고, 특히 商業에 대해서는 이를 ‘末業’이라고 규정하면서 ‘重農抑末政策’을 실시하는 것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金龍德(1961), 李成茂(1973), 愼鏞廈(1989)].

박제가는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켜 나라를 富強케 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낡은 사상과 정책을 고쳐서 商業과 手工業을 특히 중시하고 국가정책으로서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제가는 ‘商業과 工業’을 묶어서 거론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가 商業의 대대적 발전을 거론할 때는 대부분 상업과 수공업이 동시에 거론한 것이었다.

박제가의 商工業 開發論과 重商論의 논지는 크게 세 가지 논리에 의거한 것이었다.

첫째, 지역적 자금자족경제가 지배하고 상업이 발전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한 지방의 특산재화가 사용되고도 남는 부분은 무용지물로 되면서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재화는 구하기조차 어렵게 되는데, 상업을 전국적으로 발전시켜 무용한 재화와 유용한 재화를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면 전국의 재화와 자원이 합리적으로 이용되어 利用厚生이 비약적으로 크게 증진된다는 것이었다[『北學議』, “市井”].

둘째, 전국적으로 상업을 발전시키면 소비와 수요가 일어나서 이것이 생산을 자극하고

유발하여 생산증대를 일으킨다는 것이었다(『北學議』, “車九則”).

셋째, 전국적으로 상업을 발전시키면 상인들이 상업이윤을 추구하고 증대시키기 위해서 교통수단과 수공업에도 기술혁신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北學議』, “車”).

그리하여 상업을 매개로 해서 생산증대와 기술혁신이 일어남으로써 이용후생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나라와 백성의 빈곤은 극복되고 富國裕民이 실현된다고 박제가는 주장하였다.

박제가는 그러므로 당시 양반유생들이 ‘末利’라고 부르며 천시하고 억압하고 있던 ‘商業利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北學議』, “末利”). 박제가가 車의 사용을 적극 주장하고 그 기술혁신까지 논한 것은 상인들의 상업이윤을 보장하고 그들의 인격과 인권을 배려한 것이었다(『北學議』, “車”).

박제가가 상업이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상업이윤의 보장을 주장한 것은 객관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자본주의적으로 발전시키려 한 사상을 나타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박제가는 상업의 발전의 동반자로서 手工業의 발전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手工業의 발전을 강조했지만, 특히 織造와 農器具와 兵器에 관련된 수공업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박제가는 쟁기·보습·호미·쇠스랑 製造 수공업의 기술과 개량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여 제의하였다(『進北學議』, “農器六則”). 또한 그는 군사도 수공업이 발전하여 날카로운 兵器와 기술을 이용할 때 막강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車는 군사를 위한 것이 아니지마는 수레를 사용하여 輜重이 옮겨지고, 벽돌도 군사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벽돌을 이용하면 온 나라에 城廓이 갖추어진다.

온갖 工人의 技藝와 목축하는 일도 군사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三軍의 말과 전투하는 機械가 구비되지 않고 또 예리하지 않으면 군사라고 할 수 없다.

당면한 대책으로는 급히 車(수레)를 행하게 하고, 벽돌을 만들며, 목축을 잘 하도록 하고, 鄉財를 형성하도록 권장하며 여러 가지 工業技術을 감독하여야 한다(『北學議』, “兵論”).

박제가는 鐵 수공업의 발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石炭 사용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에서는 鐵을 단련하는 데 모두 石炭을 이용한다.

石炭은 火力이 강해서 능히 鋼鐵을 달구는 까닭에 兵器와 農器의 견고하고 예리함이

우리나라 것의 갑절이나 된다. 우리나라에서 혹 구입해 들여오기도 하는데, 쓰다가 망가지면 다시 단련하지 못한다.

端川과 楊根 지방에서 石炭이 난다는 소문이 있으니, 車바퀴를 꾸미거나 農器를 만드는 데 마땅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北學議』, “鐵”].

박제가는 이렇게 개발해야 할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와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抑末政策에 의하여 상업을 천시하고 억눌렀기 때문이라고 관찰하였다. 박제가는 도리어 상업을 적극적으로 진흥시켜서 재화가 전국 방방곡곡에 활발하게 유통되어야 이것이 일으키는 자극과 수요에 응하여 공업과 농업과 기술도 크게 발전하여 나라와 백성의 빈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무릇 상인도 四民 중의 하나인데 그 하나로써 셋에 통하였으니 10분의 3을 점하지 않으면 안된다”⁽¹⁾고 상업의 비중을 파격적으로 높이 책정하면서, “商賈가 유통하지 못하고 遊食者가 나날이 많아지면 이것은 人事를 잃는 것이다”[『北學議』, “財賦論”]고 강조하여 지적하고, “재화가 날로 없어지면마는 유통할 방법을 강구치 않으면서 세상이 그릇되고 백성이 빈곤한 탓이라고 할 뿐이면서, 이것은 나라가 스스로 속는 것이다”[『北學議』, “丙午 典設署別提 朴齊家所懷”]라고 당시의 위정자의 무능무책을 비판하였다.

박제가는 그의 선배 실학자들이나 동년배의 실학자들과는 달리 상업의 다른 산업과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중요시하여 ‘重商論’을 주창한 것이었으며, 상인의 비중을 총인구의 10분의 3에 달할 정도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무릇 商은 四民의 하나인데 그 하나로써 3(士·農·工)에 통하는 것인 즉 10분의 3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무릇 사람들이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모두 無用之物로 생각한다. 그러나 無用의 것을 사용하여 有用의 것과 교환하지 아니하면 소위 유용의 것도 장차 모두 偏滯하여 유통되지 않아서 오직 한 구석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모자라게 되기 쉽다[『北學議』, “市井”].

박제가는 총인구의 10분의 3 정도로 상인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인에 충원해야 할 사람들로 遊食하는 양반신분층의 商人層化를 제안하였다. 그는 놀고 먹는 양반신분층을 상인층화함으로써, 유식양반층의 문제도 해결함과 동시에 상업의 발전을 통해서 공업과 기술과 농업의 발전도 획득하려고 한 것이었다.

박제가는 양반신분층을 국내상업뿐만 아니라 대외무역에 종사하도록 시키자고 제의하

(1) 『北學議』, “末利”의 ‘夫商處四民之一 以其一而通於三 則十之三不可.’.

고, 이를 지원·장려하는 정책으로서 ① 士族들을 상인들의 臺帳에 입적시키고, ② 자본금을 대여해 주며, ③ 점포를 지어주어 여기에 살게 하고, ④ 상업을 잘한 사람은 높은 벼슬을 주어 권장해서, ⑤ 날로 더욱 상업이윤을 열심히 추구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무릇 水陸에 교통하여 판매하고 무역하는 일은 士族에게 허가하여 대장에 입적시키기를 신은 청합니다. 혹 자본금을 빌려주고 塵을 설치해 주어서 이에 거주케 하며, 뚜렷한 성과를 낸 자는 벼슬에 발탁하여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상업이윤을 추구하게 해서 그 遊食하는 형세를 점차 없애고, 그 직업을 즐겨하는 마음을 열어주어서 그 호강한 권세를 사라지게 하면 이 또한 관습을 轉移하는데 一助가 될 것입니다.⁽²⁾

박제가의 우리나라의 관습이 상업을 천하게 생각해서 양반사족들이 상업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을 염려하여, 중국의 예를 들면서, 중국에서는 사대부들이 市井에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신분에 관계 없이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양반사족들이 遊食하면서 비루하게 권세 있는 사람에게 청탁이나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상업에 종사하여 떳떳하게 직업을 갖고 자신과 나라의 빈곤을 극복하는 편이 훨씬 나은 것이라고 강조하였다〔『北學議』, “商賈”〕.

박제가가 遊食하는 양반신분층을 상업·무역에 종사시켜 상인층화해서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려고 한 사상은 실학사상 중에서도 독특하고 획기적인 사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학자들 중에서도 柳馨遠·李瀾·丁若鏞 등의 실학자들은 遊食하는 양반신분층을 농업에 종사시킬 것을 구상했었다. 그러나 농업은 당시 양반관료가 은퇴하면 자주 택하기도 하는 직업이었으므로 이것은 그다지 파격적인 사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사·농·공·상’의 四民 중에서 ‘末業’이라고 천시하고 있던 상업에다 遊食하는 양반신분층을 종사케 해서 이를 국가의 정책으로 적극 육성하여 유식하는 양반사족층의 문제도 해결하고 상업도 발전시켜 나라의 부강발전을 도모하자는 박제가의 ‘兩班身分의 商人層化論’은 당시 파격적인 것이었으며 획기적인 것이었다.

(2) 『北學議』, “丙午 典設署別提 朴齊家所懷”의 ‘臣請凡水陸交通販貨之事 悉許士族入籍 或資裝以假之 設廩以居之 顯擢以勸之 使之日趨於利 以漸殺其遊食之勢 開其樂業之心 而消其豪強之權 此又轉移之一助也’.

3. 技術革新論

박제가는 특히 商業의 비약적 발전을 위하여, 또한 일반적으로 産業全般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技術革新’을 주창하고 강조하였다.

박제가는 商工業을 비롯한 생산력발전을 위한 技術革新論을 거의 모든 논설들에서 강력히 주창하고, 당시 위정자들의 무관심과 무능으로 말미암아 “백 가지 技藝가 태만하여 황폐하여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北學議』, “農蠶總論”]고 비판하면서, 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서 생산도구가 낙후되고 생산력이 떨어져 빈곤하게 된 현실을 개탄하였다.

器械가 편리하지 못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혹 한 달, 두 달 걸리게 되면 이것은 天時를 잃는 것이다[『北學議』, “財賦論”].

우리나라 사람은 아침에 저녁일을 걱정하지 않아서 백 가지 기술이 황폐해지고 날마다 일이 분분하기만 하다[『北學議』, “甓”].

처음에 工藝가 거칠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백성들도 따라서 거칠어졌다[『北學議』, “窰”].

박제가는 기술혁신의 절박한 필요성을 수공업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박제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사방 1천 리라고 하지만 농업기술이 부족하여, 남의 나라는 세 줄을 심는데 우리나라는 두 줄을 심으니 실제의 이용면적은 6백리로 줄어든 셈이며, 남의 나라는 1日耕의 면적에서 50-60석을 수확하는데 우리나라는 20석밖에 수확하지 못하니 6백 리 면적이 다시 2백 리로 줄어드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였다. 박제가는 우리나라가 비단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舟·車·宮室(건축물)·기구·축목 등에 관한 기술혁신을 강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를 보면 백 배의 이익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하였다[『北學議』, “財賦論”].

박제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에서의 車·船을 비롯한 교통·운수 수단의 기술혁신과 수공업부문의 기술혁신의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박제가는 국방과 兵事까지도 혁신된 기술에 의거해야만 튼튼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北學議』, “兵論”].

박제가는 국내의 기술혁신을 위한 긴급한 대책의 하나로 중국으로부터의 선진기술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는 ① 해마다 10명씩 재주 있는 기술자를 선발하여 使臣을 중국에

파견할 때 통역관 중에 끼워 넣어서 중국의 선진기술을 배우고 기구도 사오게 하고, ② 나라 안에 기술혁신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관청을 세워서 배워온 선진기술을 物力을 내어 실험하고 나라 안에 반포하며, ③ 그런 후에 그 사람이 배워온 선진기술의 규모와 효과의 허실을 관찰하여 상벌을 내리고, ④ 한 사람을 세 번 중국에 보내되 별로 효과가 없는 사람은 교체해서 다시 선발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제가는 이와 같이 하면 10년 안에 중국의 선진기술을 다 배우고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北學議』, “財賦論”).

박제가는 또한 중국에 와 있는 서양인들을 중국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니 우리나라에 초빙하여 우리나라 자제들과 기술자들에게 서양의 선진과학기술을 가르치도록 해서 서양선진기술도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신이 들건대 중국 欽天監에서 冊曆을 만드는 서양인들은 모두 기하학에 밝으며 이용 후생의 방법에 정통하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觀象監 한 곳에 쓰는 비용만큼으로써 그 사람들을 초빙하여 대우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안의 자제들에게 그 天文·躔次(지구·달·별들의 회전도수)·鍾律儀器(도량형기)의 度數·農桑·의약·旱災·水災·乾燥·漏濕의 適宜함이며, 벽돌을 만들어서 궁실·성곽·교량을 건축하는 법과, 銅鑛을 캐고 덩어리 옥을 파내며 유리를 굽는 것과, 외적을 방어하는 화포를 설치하는 것과, 물을 관개하는 법과, 수레를 통행시키고 船을 장치해서 벌목이나 돌을 운반할 때와 같이 무거운 것을 먼 곳까지 운반하는 공법 등을 배우게 하면 수년이 안되어 經世에 알맞게 쓸 수 있는 인재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北學議』, “丙午 典設 署別提 朴齊家所懷”).

박제가는, 중국에 와 있는 서양인들이 천주교라는 異教를 신봉하므로 위험하다는 염려에 대하여, 그들로부터 열 가지 기술을 배우고 한 가지 포교만 금지하면 되는 것이므로 염려할 것이 없으며, 오히려 대우가 적당치 않으면 초빙해도 오지 않을 것이 염려라고 지적하였다. 여기서도 박제가의 선진과학기술 도입에 대한 열의를 볼 수 있다.

中國의 선진기술 및 중국에 들어와 있는 서양 先進技術을 적극 도입하고, 중국에 와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西洋人들을 우리나라에 초빙해서 한 기구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청년 기술자들에게 西洋 先進技術을 교육케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는 박제가의 제안은 당시로서는 참으로 획기적인 주장이었다.

茶山 丁若鏞은 그 후 선진 과학기술의 학습과 연구 전담관청으로서 ‘利用監’ 설치를 제의하면서, 그가 朴齊家등 北學派의 저서와 제안을 취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 후에 또 규장각 검서관 朴齊家가 지은 『北學議』 6권을 보았으며, 그 후에는 유신 박지원이 저술한 《열하일기》 20권을 보았는데, 거기에 기록된 중국 器具의 제도는 보통 사람의 의견으로서 능히 추측하지 못할 만한 것이 많았다. 전 將臣 李敬懋가 일찍이 나에게 ‘지금 병기로서의 火器는 모두 새로운 제도인데, 일본 조총도 지금은 구식이다. 이후 남·북에 사변이라도 있으면 다시 조총과 쇠도리깨·방망이를 가지고 오지는 않을 것이니, 지금 급무는 북쪽으로 중국에 가서 學하는 데 있다’ 하였으니, 참으로 時務를 아는 말이었다. 내 생각으로는 별도의 한 관청을 설치하여 명칭을 利用監이라 하고 오로지 북쪽에 가서 學해 오는 것을 직으로 한다는 것이다[『經世遺表』].

박제가의 西洋 先進技術의 적극적 도입과 중국에 와서 쓰이지 못하고 있는 西洋人들의 雇聘 및 선진 과학기술의 생산에의 응용에 의한 생산력의 대대적 발전을 특히 강조한 것은 그의 실학사상의 선진성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交通運輸手段(車·船) 革新論

박제가는 상공업 발전의 대전제로 특히 道路 및 車(수레), 船(배) 등 交通運輸手段과 交通의 대대적 혁신을 주창하고 강조하였다.

박제가는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넓은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닷가의 생산물과 두메산골의 생산물이 교환되지 않고 각 지방의 특산물이 통상되지 않아서 동일한 상품이 특산지에서는 썩어나가고, 다른 곳에서는 매우 高價인 것은 車(수레)를 사용해서 상업을 일으키지 않은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운송수단으로 등짐이나 가축짐 대신 車를 사용하여 생산과 상공업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이익과 풍요·편리한 생활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동서가 천리이고 남북은 동서보다 갑절인데 王都가 그 북편에 있으므로 사방에서의 거리는 가로로는 五백여 리에 불과하고 세로로는 천여 리다. [중략] 만약 劉晏과 같이 잘 달리는 사람을 이용하면 사방 物價의 높고 낮음을 수일 안에 평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메에서는 돌배(櫨梨)를 담갔다가 그 신맛을 취해서 장 메주 대용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새우젓이나 조개젓을 보고는 이상한 물건이라고 회한해 한다. 그 가난한 것이 이와 같음은 왜 그럴까. 이것은 車(수레)가 없는 탓이라 단언한다.

全州의 장사군이 처자와 함께 생강과 참빗을 짚어지고 도보로 함경도와 義州까지 가

면 이익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든 근력이 길 걷기에 다 빠지고 가정적인 낙을 즐길 틈이 없다.

그 밖에도 元山에서 미역과 건어를 실은 짐바리가 밤낮으로 北路에 뺏겼으나 많은 이익이 없는 것은, 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반절이 넘기 때문이다.

嶺東에는 꿀은 생산되나 소금이 없고, 關西에는 鐵이 산출되나 감귤(柑橘)은 없으며, 北道에는 삼(麻)은 잘 되어도 무명이 귀하다. 또 두메에는 붉은 팔이 흔하고, 해변에는 창명척과 매기가 흔하다. 그밖에도 영만 古刹에서는 名紙를 산출하고, 靑山·報恩에는 대추숲이 많고, 江華는 漢江 입구에 있는데 감(柿)이 많다. 이런 물자를 서로 이용하여 쓰임새를 풍족하게 하고 싶어도 힘이 자라지 않는다.

말을 이용하여 운반하여도 넉넉하다”는 자가 있다. 그러나 한 필의 말과 한 채의 車(수레)가 운반하는 양이 비슷하다 해도 車(수레)가 훨씬 낫다.

끌어당기는 힘과 싣고 다니는 고달픔이 엄청나게 다른 까닭이다. 그러므로 車(수레)를 끄는 말은 병들지 않는다

하물며 五, 六 필의 말로 운반할 것을 車(수레) 한 채로써 다 운반할 수 있으니 몇 곱절 이익이 있음에랴.

지금 큰 車(수레)가 비록 투박하나 곡식 열닷 섬을 싣고 소 다섯 필이 끈다고 하자. 한필에 두 섬씩 싣는다 쳐도 벌써 三分의 一이란 이익을 얻은 것이다(『北學議』, “車九則”).

박제가는 신라의 부강의 기초가 船과 車의 사용에 있다고 주장하고(『北學議』, “財賦論”), 우리나라가 삼국시대·고려시대에도 車(수레)를 많이 사용했는데 조선조에 와서 오히려 차 사용이 멀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車(수레)는 萬物을 실음으로써 이로움이 한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르기를 “산과 냇물이 험하고 막힌 때문이다” 한다. 대저 新羅·高麗 이전에도 車(수레)를 사용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柳車達이 戰車로 고려 太祖를 도왔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예전에는 劔閣·九折·太行·羊腸의 車(수레)라고 일컫는 것이 있었으나 그것은 말할 필요 없고, 길이 험하다면 통행할 수 있는 곳만 운행하면 되지 않는가(『北學議』, “車九則”).

지금 서울 軍門에서 사용하는 큰 車(수레)는 너무 투박하여 빈 車(수레)를 운행하여도 소가 지치는 형편이다. 또 큰 나무로 소 정수리를 누르므로 소가 병들어 죽는 수가 많다.

무릇 車(수레)를 끄는 소는 고기도 먹을 수 없고 뿔도 이용할 수 없으니 이는 극도로 지쳐서 毒氣가 발한 때문이다. 咸鏡道에는 自用車라는 것이 있어서 제법 경쾌하다. 다만 車(수레) 속바퀴에 한 자쯤 되는 귀가 나왔는데 대개 蒙古나 元나라의 옛 제도를 사용한 것이다. 瀋川司에는 모래차[沙車]가 있고, 혹 인가에서 사사로이 車(수레)를 만들기도 하나 모두 규격이 맞지 않는다[『北學議』, “車九則”].

박제가는 상공업을 발전시키고 백성의 利用厚生을 위해서 육상운송에서는 등짐이나 소·말 대신에 車(수레)를 사용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강조하였다.

박제가는 우리나라가 산이 많아서 車가 적합지 않다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몇 개의 峻嶺을 제외하면 車가 다닐 道路를 낼 수 있으며, 車 사용을 결의·결정만 하면, 道路는 이를 위하여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수레를 운행하면 道路는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며 동쪽으로 大關嶺, 남쪽으로 鳥嶺, 북쪽으로 鐵嶺, 서쪽으로 洞仙嶺에도 약간만 수축하면 통할 수 있을 것이다[『北學議』, “車九則”].

박제가는 선배 실학자 洪大容의 말을 빌어서 車가 다닐 道路를 닦아 수레 사용의 이익을 얻는 것이 도로 건설비용의 몇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洪湛軒 大容은, “車(수레)가 다닐 만한 길을 닦으려면 토지 몇 마지기는 없어지겠지만 車(수레)를 사용해서 얻는 이익이 땅값을 제하고도 넉넉할 것이다” 하였다. 지금 성문 앞과 저자 거리의 작은 도랑은 반드시 이를 覆蓋해서 伏流되도록 하고 나무 다리를 세로 걸쳐 놓은 것은 가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北學議』, “車”].

박제가는 車를 개량하기 위하여 우선 선진기술로 제조된 中國의 車를 매년 북경에 가는 사신편에 몇 대씩 구입해 오도록 해서 각 驛站에서 번갈아 사용하면서 製作法을 익히고 그 편리하고 이익됨을 널리 알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車(수레)의 크고 작은 것과 가볍고 무거움, 빠르고 느린 것에 대하여 중국 사람은 이미 경험을 쌓았고 연구한 바가 또한 깊다.

그런 때문에 다만 숨쉬 있는 工人에게 중국 車(수레)를 본떠서 만들도록 할 것이며 한자, 한 치라도 어긋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마땅할 것이다.

먼저 關西지방 각 고을 守丞의 녹봉등 지위에 따라서 매년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 편에 車(수레) 몇 채씩을 사다가 교체할 때나 사신이 지나갈 때에 이용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히 보여서 車(수레) 만드는 법을 배우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北學議』, “車”].

西路 각 고을 관리에게 해마다 중국 가는 사신 편에 중국 車(수레) 몇 채씩을 구해 오게 했다가 맞이하고 보내는 驛站에 번갈아가며 쓰게 하여 백성들에게 보게 하고 馬夫 몇 명을 말몰이꾼으로 삼으면 車(수레)를 배우는 데 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車(수레)를 만들 재목은 넉넉하다. 그러나 숲을 굽는 외에는 별로 이용할 줄을 모른다. 스스로 보배로운 것을 버리고 없는 것만 한탄하는 것은 웬일인가[『北學議』, “車九則”].

박제가는 또한 해상운송과 연안운송에 사용한 船舶(배)의 대대적 혁신을 주창하고 강조하였다.

박제가는 우리나라 船의 제조기술이 정교하지 못하여 바닥이 항상 물이 들어 젖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가로 퍼놓은 판자도 없어서 안정성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선진기술을 응용한 중국의 배를 보고 배울 것을 강조하였다.

박제가는 造船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西洋 포함) 선박이 破船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닿으면, 그 안에는 반드시 造船 기술자가 포함되어 있으니, 숨쉴만한 工匠으로 하여금 造船技術을 자세히 물어서 先進 조선기술을 배우게 하도록 하라고 제의하였다[『北學議』, “船”].

박제가는 외국선박이 漂流해오면 그 漂着한 외국인을 머물게 하여 선진 조선기술을 다 배운 후에 돌려보내도 무방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만약 풍파에 표류한 배가 바닷가 고을에 와서 닿았다면, 그 배에는 반드시 배 만드는 工人과 그밖에 여러 가지 기술 있는 자가 있을 것이니, 그들이 머무는 동안에 숨쉴만한 우리 나라 공인이 그 造船의 제도를 본뜨고 그 방법을 다 배우면 좋을 것이다.

반드시 그런 후에 그들이 돌아가도록 허가해 줘야 한다.

그러나 배우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혹 풍파를 만났던 사람들이 배를 버리고 陸路로 돌아가는 일이 있는데, 그 지방 관원에게 즉시 배를 불태워 버리게 하니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北學議』, “船四則”].

박제가가 車·船 등 交通運輸手段의 대대적 발전을 주창한 것은 상공업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것이 일차적이었지만, 그는 國防과 文化의 발전을 위해서도 車의 사용과 船舶의 개량 사용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車·船의 기술혁신과 그 사용을 국가 산업·경제·사회·문화·국방 발전의 전략적 부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5. 開國通商論

박제가는 당시 4백여 년간 鎖國政策에 의하여 海外通商貿易을 금지해 오고 있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나라의 산업과 경제와 사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開國과 海外通商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박제가의 개국통상론은 “通江南浙江商舶議”에서 집중적으로 주장되었다.

박제가는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고 백성이 빈곤하다. 이제 농업생산을 일으키고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며 상업과 수공업을 발전시켜 나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다 동원해도 오히려 부족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또한 반드시 遠方(다른 나라)과 물자를 유통시켜야 재화가 증식되고 백 가지의 수많은 용도에 쓰이는 물자를 생산할 수 있다”[『北學議』, “通江南浙江商舶議”]고 해외통상을 주창하고, “지금 나라의 큰 병폐는 빈곤인데, 빈곤은 무엇으로써 구할 것인가 하면 중국과 통상하는 일이다”[『北學議』, “丙午 典設署別提 朴齊家所懷”]라고 중국과의 통상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박제가는 매우 편리한 船을 교통운송수단으로 하여 중국과 통상을 하면, “지금은 면포를 입고 白紙에 글을 써도 물자가 부족하지만 船으로 무역을 하면 비단을 입고 竹紙에 글을 써도 물자가 남아 돌아감을 알게 될 것이다”[『北學議』, “通江南浙江商舶議”]라고 해외통상의 이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박제가는 중국과의 무역항로로서 ① 漢江 河口와 ② (중국의) 登州와 萊州 ↔ (우리나라의) 長淵, ③ 金復 · 海蓋 ↔ 宣川 ④ 浙江 · 泉州 · 漳州 ↔ 恩津 ↔ 礪山の 무역을 제안하였다[『北學議』, “丙午 典設署別提 朴齊家所懷”].

박제가는 과거에 일본이 중국과 직접무역을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중계무역을 담당할 때에는 우리나라가 이익을 보았는데, 일본이 이의 불리함을 알고 직접 중국과 통상을 하고 그 후 30여국과 해외통상을 하여 부강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배가 한 척도 통상하러 오지 못하였다”고 개탄하였다.

박제가는 開國과 海外通商을 2단계로 나누어 제의하였다.

제1단계는 開國하여 우선 中國과 通商하는 것이며, 이것은 긴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漢江 河口 · 長淵 · 宣川 · 恩津 · 礪山(江景)을 개항장으로 제의한 것이었다.

제2단계는 日本 · 安南(베트남) · 琉球 · 臺灣 등과 通商하는 것이다.

박제가는 西洋 각국과의 通商을 직접 거론할 현실에는 처해 있지 않았으나, 만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서양 각국과의 海外通商도 제3단계로 거론할 뜻이 그 문장에 시사되

어 있다.

박제가는 현재 일본은 간사하여 항상 우리나라의 틈을 엿보고, 安南·琉球·臺灣은 물길이 험하고 머니, 우선 긴급하게 중국과 통상을 시작하여 발전시키다가, 국력이 좀 강해지고 백성의 생업이 안정되면 위의 다른 나라들과도 통상을 열 것을 주장하였다(『北學議』, “通江南浙江商舶議”).

박제가는 이러한 해외통상이 비단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국내에 도입케 하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견문을 넓혀서 세계가 큼을 알게 하며 양반유생들의 고루성을 공격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파케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北學議』, “財賦論” 및 “通江南浙江商舶議”).

또한 배·車(수레)·건축·기계의 편리한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며, 천하의 圖書도 들어오게 될 것이니, 習俗에 묶인 士族儒生들의 편벽되고 막히고 고루하고 정체되고 틀에 짜인 소견은 공격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파될 것이다(『北學議』, “丙午 典設署別提 朴齊家所懷”).

우리는 곧 그 기술을 배우고 그 풍속을 탐방하여 나라 사람들의 견문을 넓혀주어서 천하가 큼을 알게 하고 우물안 개구리가 부끄러운 것을 알게 하면 그 世道를 위함이 어찌 교역하는 이익뿐이겠는가(『北學議』, “通江南浙江商舶議”).

당시 쇠국정책이 4백년간이나 지속되어 온 속에서 박제가가 개국과 해외통상론을 주장한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이 사상은 그 후 바로 오경석등 開化思想으로 계승·발전되었다(慎鏞廈(1985)).

6. 맺음말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박제가는 18세기 말엽 상품화폐경제의 일정한 발전과 관련지으면서, 자기의 조국을 세계의 대세와 시대의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는 富強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당시 집권층의 경제사상과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그 자신의 독특한 사상과 정책을 주장하였다.

박제가는 당시의 집권층이 儒教的 農本主義와 禁慾主義에 지배되어 商業을 ‘末業’이라고 천시하면서 전근대적 ‘重農抑末政策’을 집요하게 시행하는 것을 신랄히 비판하고 반대하였다.

박제가는 商工業이야말로 전국의 자원과 재화를 합리적으로 유통·분배시켜 생산을 증대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백성을 풍요롭게 만들고 나라를 富強하게 발전시키는 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상공업의 대대적 발전 정책을 요구하였다.

특히 박제가는 당시 집권층이 ‘末利’라고 천시하여 극도로 억압해오던 ‘商業利潤’을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商業利潤’의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박제가의 이러한 주장들은 객관적으로 당시 대두하여 성장하고 있던 자본주의 요소를 더욱 발전시켜 나라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추구한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박제가가 상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道路를 닦고 운송수단으로서 車와 船舶을 개량하여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도 나라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열도록 추구한 생각과 합치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박제가는 상공업의 발전과 나라의 부강을 위하여 技術革新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특이하고 놀라운 것은 중국 북경에 와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西洋人들을 국내에 봉급을 주고 고빙하여 우리나라의 능력 있는 工匠들에게 서양의 先進科學技術을 가르치게 해서 선진적 서양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채용하려 한 점이었다. 박제가의 주장대로 18세기 말에 西洋의 先進科學技術을 이러한 열의로 적극 도입하여 생산에 채용했다면, 19세기 초엽과 그 후의 조선왕조의 산업과 사회와 문화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박제가는 또한 조선왕조의 4백년 이상 오래된 鎖國政策을 신랄히 비판하고 開國과 海外通商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는 개국과 해외통상무역이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는 물론이요, 정치가들과 선비들과 백성들의 固陋한 생각과 ‘우물안 개구리’의 시야를 벗어나게 하여 나라와 백성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박제가는 이러한 개국과 해외통상을 주창하면서도, 만일의 경우의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교란에 대비하여, 개국과 해외통상을 ‘段階的’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즉 제1단계는 조선에 대하여 침략의도가 없는 中國과 개국하여 통상무역을 실시해서 경험을 쌓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다음에, 제2단계에서 우리의 틈을 엿보고 있는 日本 및 바닷길이 사나운 安南·流球·臺灣 등과 해외통상을 전개하며, 그 다음에는 더 먼 나라들과 개국하여 해외통상을 전개하도록 제의한 것이었다.

박제가의 이러한 사회경제사상은 조선왕조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시사한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이고 애국적인 사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大學校 社會學科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6409

팩시: (02)873-3799

參 考 文 獻

金龍德(1961): “朴齊家 研究,” 『中央大 論文集』 第5集.

朴齊家: 『北學議』.

朴齊家: 『進北學議』.

愼鏞廈(1985): “吳慶錫의 開化思想과 開化活動,” 『歷史學報』 第107集.

愼鏞廈(1989): “朴齊家の 社會身分觀과 社會身分制度 改革思想,” 『金彩潤教授 回甲紀念論文集: 社會階層, 理論과 實際』.

李成茂(1973): “朴齊家の 北學議,” 歷史學會 編, 『實學研究入門』, 一潮閣.

丁若鏞: 『經世遺表』